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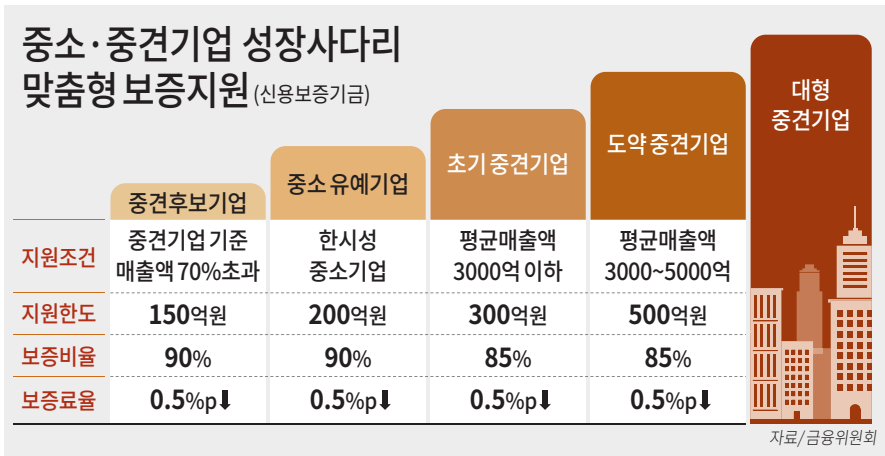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민간자금 유입 유도

금융위, 150조 규모 펀드 가동
이억원 위원장, 광주·전남 찾아
“지역 성장·첨단산업 도약 주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현장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지방을 선택하고, 민간금융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면책 특례와 딥테크·AI 보증 패키지를 한꺼번에 내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함께 향유되도록 금융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 정책펀드로, 최근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승인하며 본격적인 투자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위는 이번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금융 협업 상품과 우대자금 공급 방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광주 기아 오토랜드 광주1공장을 찾아 미래차 산업 현황과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현대·기아차 임원진은 미래차 비전과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의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여주시, HD현대상호 등 지역기업 30여개 대표와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과거 일부 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모델이 아니라 ‘지방주도’의 상생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승인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이 같은 메가 프로젝

트가 더 많이 발굴돼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의 도약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위해 규제 완화 추진
은행 RW 합리화해 내달 시행
정책금융기관 지원 대폭 확대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책금융기관 협업 ▲민간금융 참여 확대 ▲금융-산업-지역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핵심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와 면책이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분야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목적 펀드 참여에 대한 은행 위험가중치(RW)를 합리화해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며 면책 특례를 3월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대폭 확대된

다. 신용보증기금은 딥테크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장 11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하는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조건을 우대한 2조원 규모 ‘AI 첨단산업 특별보증’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최대 5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성장사다리 보증’ 역시 지역 기반 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 정상화도 함께 예고했다. 그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와 부실 동전주 요건 신설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약 150개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금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2일 충청권에서 바이오·반도체 기업 간담회와 천안 지역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프로젝트 발굴과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운용, 불장에도 선두… ETF 순자산 1위 MSCI 지수, 현대건설·삼성에피스 편입

142조2068억… 점유율 39.89%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 113조

삼성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벌리며 1위 굳히기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총액은 142조2068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39.89%를 차지한다. 이는 2024년 이후 무너졌던 ETF 시장 점유율 40%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3조4941억원으로 31.84%를 기록했다. 점유율 격차가 약 8.05%포인트(p)까지 벌어진 셈이다. 2024년 연말 기준 두 운용사 간 ETF 점유율은 2%포인트 안팎이었지만, 지난달 5%포인트를 넘어섰고, 이달 들어 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코스피는 76%, 코스닥은 37%씩 상승했고, 지난달에도 각각 24% 정도 올랐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강한 삼성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체 ETF 순자산총액 1위 역시 미래에셋운용의 ‘TIGER 미국S&P 500’를 제치고 삼성운용의 ‘KODEX 200’가 차지했다.

투자자들의 선택도 삼성운용으로 몰리고 있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ETF 종목 1·2위도 ‘KODEX 코스닥150’(4조7864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2조610억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자금유입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 이상을 삼성운용의 KODEX ETF가 차지하고 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3팀장은 “KODEX 200이 전체 ETF 가운데 순자산 1위에 오른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엔 벌어진 점유율 격차를 쉽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354조739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5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5일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불어난 규모다. ETF 시장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만큼 점유율 1%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경우, 삼성운용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거래소는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웨이·두산밥캣·LG생건 제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건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새로 편입되고 코웨이, 두산밥캣, LG생활건강이 제외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0일(현지시간) 2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7일 장 마감 후 이뤄진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편출되

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편출됐다.

증권가에서는 2~3개가 편입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편출 종목은 2~4개로 점쳐졌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관심 테마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달 편출입 가능 종목의 변화 또한 예년과 다르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 3조 돌파

1년여 만에 약 3배 증가

키움증권은 자사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3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 투자금액 기준 잔고는 지난 6일 3조70억원을 기록했다.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3조5623억원이었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금액 대비 평가금액 규모가 커졌다.

키움증권 중개형 ISA 잔고는 2024년 말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1년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 계좌도 2024년 말 14만5000좌에서 최근 35만좌를 넘어섰다.

중개형 ISA 계좌 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1.36%, 2024년 2.9%, 2025년 4.44%로 증가했다.

잔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4%를 차지했고, 중개형 ISA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860만원으로 전체 중개형 ISA 평균 가입금액 480만원(금융투자협회 집계치)을 웃돌았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 통합 개설, 비영업일·모바일 웹 계좌 개설 프로세스 개발 등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과 외부 연계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마케팅을 선보인 점이 성장 비결”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중개형 ISA, 연금저축 등 절세혜택 계좌들을 통합한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신하은 기자

2년 만기 폐쇄형 구조

한국투자증권이 세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한국투자 IMA S3’를 출시하고, 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약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한국투자 IMA S3’는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모집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IMA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



까지 두 차례 상품 모집을 통해 약 1조 8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번 상품 역시 국내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등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IB역량을 기반으로 원금의 안정적 운용을 우선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허정윤 기자